

왕의 산마루의 몰락



DYE · SUQLING · TUDVASEVA · BENJAMIN · VEGA



HEROES OF THE STORM

왕의 산마루의 몰락

JUSTIN DYE

글

EUNHO SHON

번역

SUQLING

SASHA TUDVASEVA

그림

JIHYE SOPHIA HONG

식자

RYAN BENJAMIN

OSCAR VEGA

표지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RAPHAEL AHAD

TREVOR JACOBS

KEVIN MICHAEL JOHNSON

PETER LEE

VALERIE WATROUS

크리에이티브 자문

KRISTOFFER BARCARSE

COLTON CARMINE

TAYLOR HANKINS

프로듀서

FELICE HUANG

CHARLOTTE RACIOPPO

GIL SHIF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



HEROES OF THE STORM #3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Heroes of the Storm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BLIZZARD
ENTERTAINMENT



1달 전, 알터렉 고개



우려했던 대로다. 까마귀 군주는 알터렉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의 부름에 응한 군대가 그에게 저항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까마귀 군주는 비밀리에 나의 아군의 오랜 숙적인 호드를 조종하고 있었다. 호드는 이를 모른 채 우리의 칼을 맞대었다.



이제 알터렉의 심장석은 그의 차지가 되었다.

그가 곧 오겠군요, 내 사랑...



...그리고 이번엔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고맙다, 델리아...
동생이랑 꼭
붙어 있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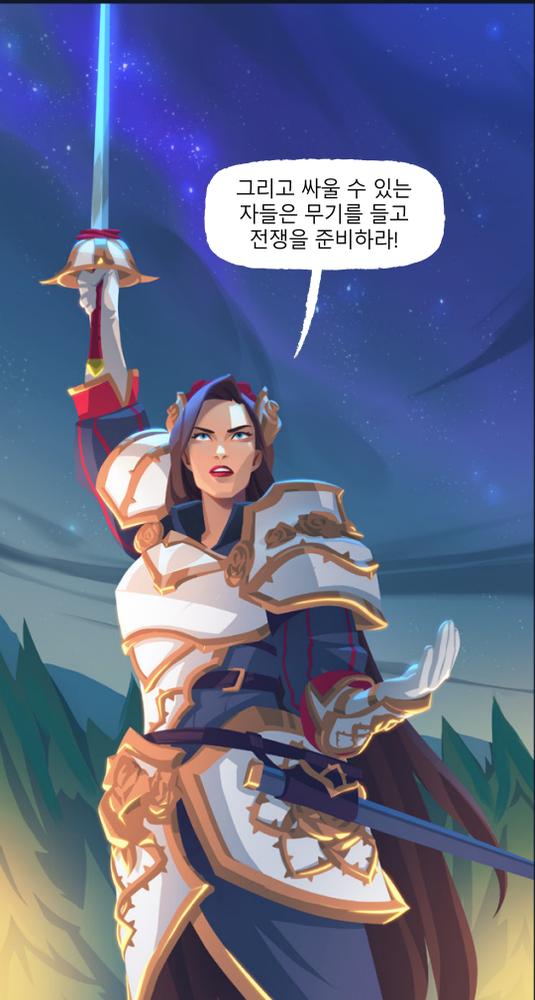
전사들이여,
우리 왕국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악이 다가온다.

그들은 우릴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싸울 여력이 되지 않는
자들은 그대들이 아끼는
자들과 함께 성으로 향하라.

내 기사들이
그대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까마귀 군주가 일으킨
파괴의 물결을 받아칠 절벽이
될 것이다. 서로를 믿는다면
우린 쓰러지지 않으리라!

**왕의
산마루를
위하여!**

왕의 산마루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저들을 모조리
죽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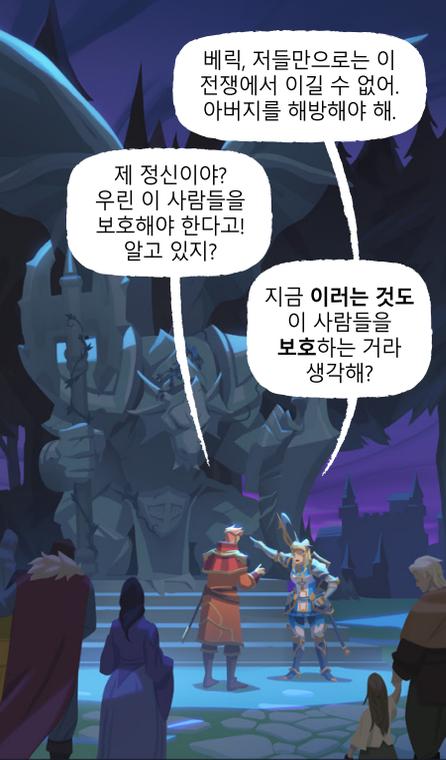


아, 젠장...
이건 반칙이잖아!



등 뒤를
조심했어야지!





베릭, 저들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아버지를 해방해야 해.

제 정신이야? 우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

지금 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 생각해?



그렇진 않지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베릭, 왕이 없으면 왕의 산마루는 패배하고 말 거야. 우리가 어디에 숨든 간에.

네가 없으면 아버지를 풀어줄 수 없어.



하야. 난 누나가 맞는 말을 할 때가 참 싫더라.



케인 님, 이 사람들을 성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꼭 돌아올게요... 지원군과 함께.



아버지,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태양과 달의 힘으로, 깨어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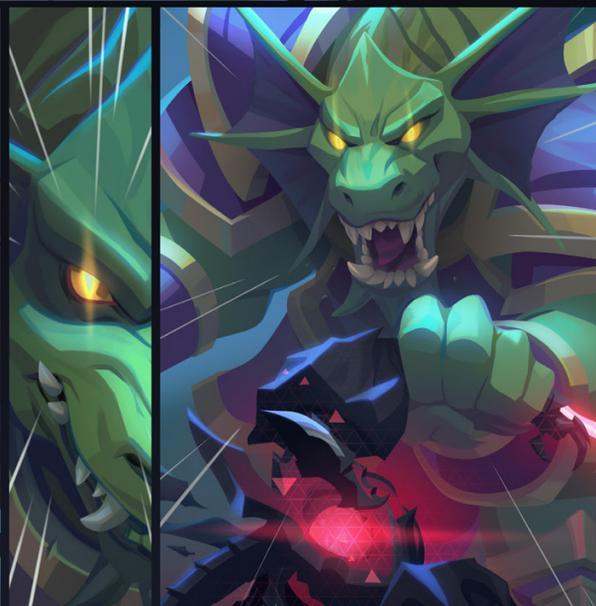
우리의 힘이 다할 때까지.



러기 있었군...



아버지, 부디 깨어나세요!





와, 우리가 해냈어!
이제 누구도 우릴
못 막을 거야!



시간이 없어.
어서 성으로 가야 해.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
이 나쁜 놈아!

바보야!
내 뒤에 있어!



도망치거라...



아버지,
이겨내셔야
해요!



조심해!



아악!



그만두세요!
제발!



대체
무슨 짓을!?





하하하...

네놈이...



애처롭기
그지없군.



케인, 내 백성들을
피신시켜라. 당장.



오르피아는
어디 있나?

여기 없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무사해야
할 텐데...



정말
고귀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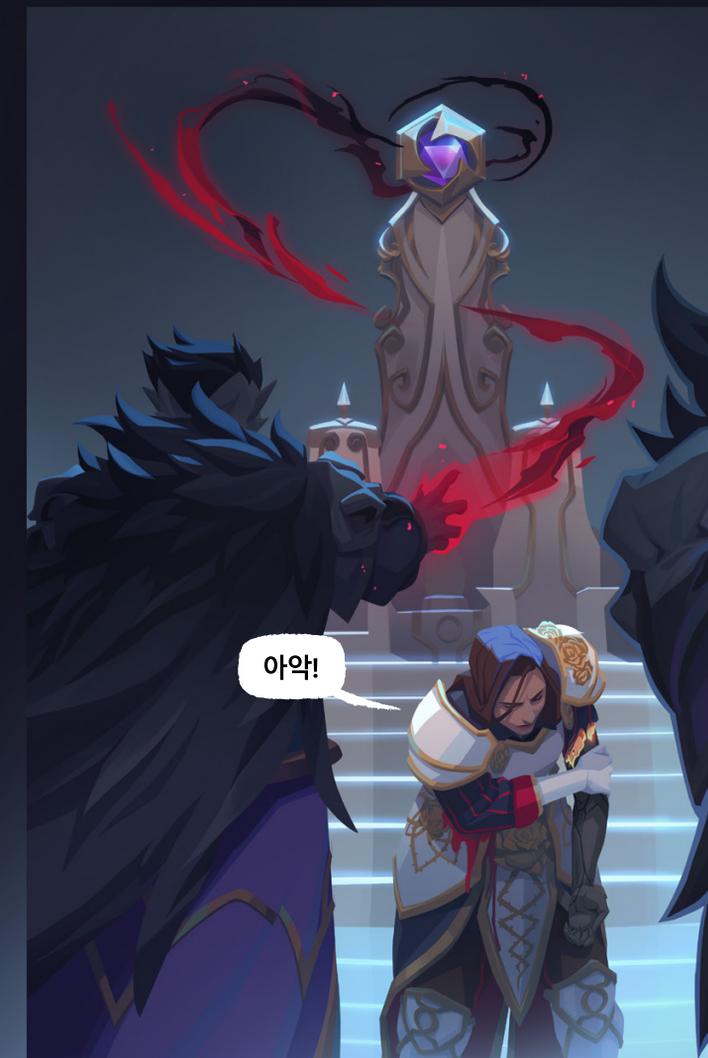
무의미하지만,
고귀한 건
인정해주지.

왜!?

→ 클럭 ←

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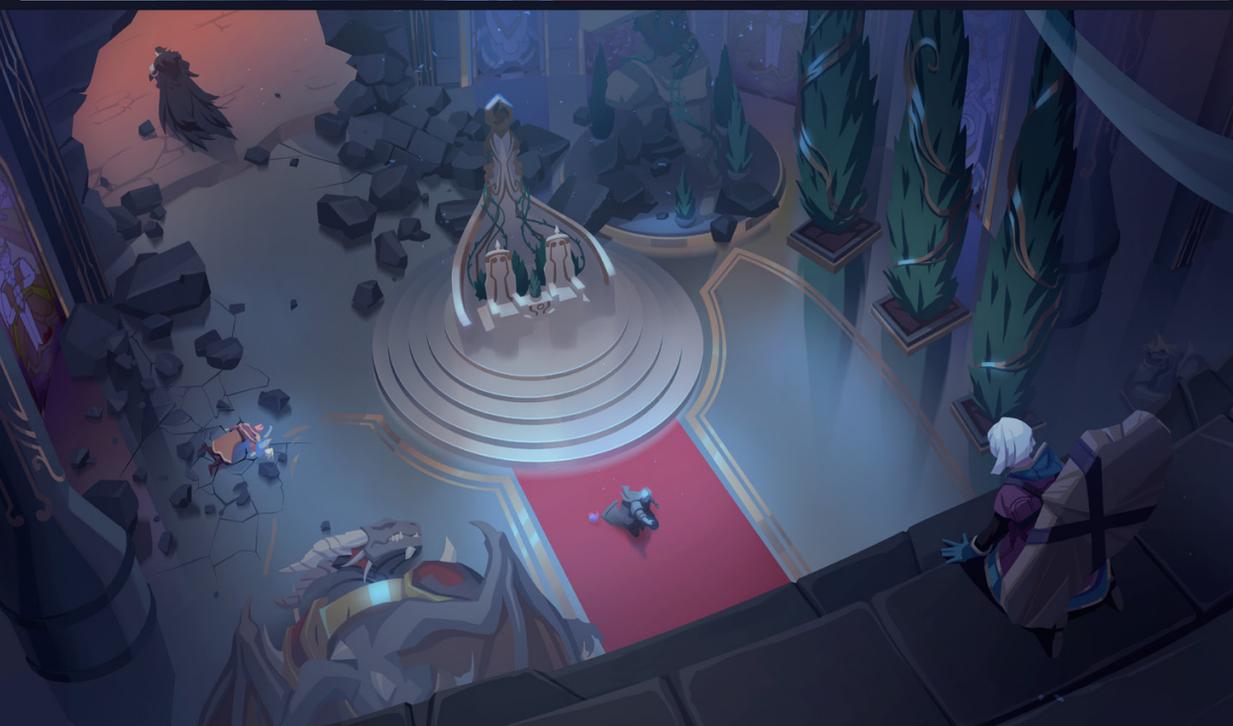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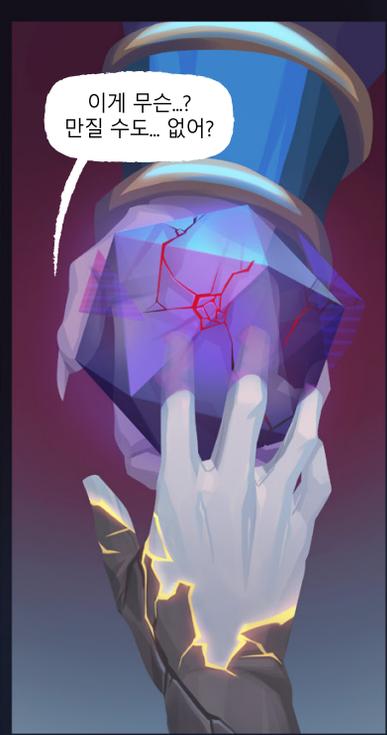
네가 감히 내게
맞섰기 때문이지.



아악!

바로
이건가.





내...
내가 나서야 했는데...

케인이 옳았어.



누군가
이 어둠에 맞서야 해...



...그러지 않으면
새벽은 절대 밝아오지
않을 거야.

다음 호에 계속...